
2015년 캄보디아 진출전략

2015. 3

kotra
프놈펜 무역관

목 차

I. 캄보디아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
II. 2015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3
1. AEC 출범 영향	3
2. 워크퍼밋 제도 강화	3
3. 해외자금 투자 계획	4
III. 캄보디아 시장 진출전략	5
1. 중장기 진출전략	5
2. 세부 추진전략	5
IV. 프놈펜 무역관 추진사업	7
[별첨]	
가. 관할지 경제동향	8
나. 우리나라 진출현황	10

캄보디아 진출전략 보고서

I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낮은 노동임금과 특혜관세혜택을 기초로 하여 우회수출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노동임금의 상승, 경제 발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 방향이 서비스업 부분으로도 증가하고 있으며, 꾸준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앞으로 소비 시장으로서도 발전하고 있음.

① 우회 수출 기지 역할

- 27개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으로 수출기지 역할
 - 미국 및 EU 수출을 겨냥한 의류 봉제 공장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미국 등 27개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받고 있음.
- 수출 및 수입 상위품목이 대부분 봉제 관련 제품
 - 봉제 공장 다수 진출로 인한 주된 거래 품목은 봉제 관련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 수입 후 완성품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이러한 제조 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중간재, 원자재등의 수입관세 감면 및 면세, 완성품 수출시 100% 세금 면제, 과실송금 제한 없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캄보디아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No.	HS Co de	Product Name	Weight (Ton)	Value (USD-Mil)	Share
수입	1 60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229,453.26	1,394.57	19.75%
	2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1,270,855.74	984.27	13.94%
	3 55	Man-made staple fibres	105,953.02	713.23	10.10%
	4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194,097.64	643.70	9.12%
	5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119,265.86	464.14	6.57%
수출	1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271,942.44	4,058.16	51.79%
	2 49	Printed books, newspapers, pictures and other products (Cheques,...)	234.83	2,282.55	29.13%
	3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35,056.39	299.40	3.82%
	4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23,286.49	293.42	3.74
	5 62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15,506.47	218.59	2.79%

② 중고 및 재고품 위주의 가격시장

- 자체 제조업 기반시설 부족으로 중고/재고품 위주의 무역시장 발달
 - 대부분의 제품 소비성향에서 품질보다는 가격지향적인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소비시에도 신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의 거래가 활발한 시장임.
 - 국내 기업 생산 제조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가 낮은 점과 함께 해외 신제품에 대한 구매 역시 가격적인 면에서 구매가 힘든 만큼 해외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③ 높은 경제적 자유도 및 경제 성장 역동성

-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력
 - 중국 137위, 라오스 144위, 베트남 147위, 미얀마 167위와 비교하여 경제적 자유도 108위로 높은 자유도를 보이고 있음.

<캄보디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3)>

관련 분야	주요 지표 (단위, 기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동아·태평양 지역 평균	OECD 평균
창업	필요절차(횟수)	9	13	6	-	-
	소요기간(일)	85	33	92		
	소요비용(% , 1인당 GNI 대비)	100.5	2.1	7.1		
	소요 최소자본(% , 1인당 GNI 대비)	28.5	85.7	0.0		
세금 지출	회수(년당회수)	40	7	34	25	12
	소요시간(년당시간)	173	338	362	209	176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지수(단위: 0~10)	5	10	2	5	6
	고용주책임지수(")	9	1	1	5	5
	주주소송지수(")	2	4	2	6	7
	투자자보호지수(")	5.3	5.0	1.7	5.4	6.1
건설 허가	필요절차(횟수)	21	28	23	-	-
	소요기간(일)	652	270	108		
	소요비용(% , 1인당 소득 대비)	36.9	375.3	48.6		
계약 이행 강제	시간(일)	401	406	443	522	510
	비용(% , 클레임 대비)	103.4	11.1	31.6	48.6	20.1
	필요절차(횟수)	44	37	42	37	31

- 토지소유는 불허되어 있지만, 마약 및 특수 화약물등 5개 목록을 제외한 업종에 투자 제한이 없으며, 과실송금 및 외환규제가 없어 투자 자유도 높음.
- 평균 7%의 높은 경제 성장률 보이고 있음.
 -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시기에 0.1% 이후 지속적으로 6%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 보이고 있음.
 - * 2012년 7.3%, 2013년 7.4%, 2014년 7.2%, 2015년(예상) 7.5%, 2016년(예상) 7.2%

①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y Community) 출범 영향

- 상대적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는 아세안 통합으로 인해 큰 변화 예상됨
 -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생산품 기반의 단일시장화,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경제 지역화, 지역경제 통합화를 넘어 세계경제 통합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 감소효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기술인력의 교환의 달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또한 이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예측이 있음.

② 캄보디아 워크퍼밋 단속 강화

- 캄보디아 201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워크퍼밋 소지여부 단속 강화 및 소급 적용
 - 기존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는 워크퍼밋과 관련된 제한없이 노동관련 행위에 자유로웠으나, AEC 출범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워크퍼밋 단속 강화 노력
 - E-visa를 소지하고 체류중인 외국인 모두 워크퍼밋 신청대상으로 분류되며, 비자 발급 기간에 따라 소급 예정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장기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혼란 증가 예상됨.

③ ADB 캄보디아 투자 계획

- ADB 차후 5년간 국가 경제 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해 캄보디아에 8억 달러 양허성자금 제공 계획
 - Cambod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4-2018 계획과 연관한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임. 3가지 중점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발전, 사회 개발 및 공공부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농업 생산성 향상, 제품 상업화, 지방 및 도심 인프라 개발, 천연자원 관리 향상, 무역 및 운송 시설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음. 또한 심화 계획으로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한 환경 개선 및 민간부분개발, 금융부분 개발에도 지원 예정.

⑦ 캄보디아 정부 투자 계획

- 향후 3년간 524만 달러의 공공투자 프로그램 진행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프로그램으로 2014년 9월 승인됨. 약 500개 프로젝트에 자금 투입될 예정으로 국가 전략 개발 계획 2014-2018 자금인 2658만 달러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예정임.
 - 구체적인 프로젝트 지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개략적인 투자 금 비율은

기반시설에 47.7%, 경제부분에 32.2%, 사회개발부분에 12.4%, 서비스 부분에 7.7%의 배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되었음. 또한 전체 프로젝트의 약 60%정도가 지방 개발 프로젝트 될 것.

⑧ EU 390만 달러 캄보디아 투자 지원

- 유럽연합은 3백만 유로(미화 390만 달러)를 중소기업 캄보디아 투자 장려를 위해 사용 예정
 - 유로챔(EuroCham)를 통해 조성된 5년 보조금(Grant) 유럽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예정임.
 - 아세안 전체 FDI 금액의 24% EU에서 차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에서는 EU국가의 FDI 비중이 2% 수준에 그침.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투자자 유치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계획임.
- 유럽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비즈니스 환경 이해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
 - 캄보디아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중국, 일본, 한국에 비해 유럽 투자자 수가 매우 적은 상황임.
 - 유럽 투자자들의 시장 이해를 돕고 직접 투자시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제조업,接客업 및 관광업 투자를 촉진할 예정.

1. 중장기 진출전략

- 1) 캄보디아 시장은 ASEAN, 일본, 중국 등이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프론티어 시장’으로 일컬을 수 있으며, 단순한 단기적 경제이익 추구 차원에서 접근할 시에 실패 가능성이 높음
- 2) 전기, 시스템, 교통, 교육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인프라가 태부족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 경제이익 창출을 위해 시장에 뛰어들 경우에는 혹독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함
- 3) 중국은 국가적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투자(도로, 전력 등)에 진력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도로, 위생 및 교육관련 ODA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은 양국과 같은 동일한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위주의 캄보디아 시장접근을 할 수는 없으며, 한정된 부문으로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진출이 필요

2. 세부 추진전략

1) 상품교역

○ 생필품 및 아이디어 소비재 등

- 캄보디아는 아직도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입이 가장 비중이 크고, 생필품이나 화장품류 등의 수입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내수시장이 미약함)
- 한국 삼성, LG 등의 휴대폰 등 가전기기의 인기 및 수요는 꾸준하나, 작은 시장 및 병행수입, 밀수 등에 의한 시장 피해는 상존하는 것으로 보아짐
- 서서히 최저임금의 향상 및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필품 및 아이디어 소비재의 시장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짐
(2010년경부터 불고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박카스의 열풍은 적절한 마케팅과 부합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좋은 예임)

2) 투자진출/투자유치

-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민간 투자진출 내용은 봉제기업 위주이며, 일부 목재 분야 외에는 관광 관련의 중소기업 투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건설 분야 투자 등이 주춤한 상태이며, 최근 들어 활발한 중국, 일본의 투자진출 분위기와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의 경우 베트남과의 관계 악화/중국내 인건비 상승등의 요인이 POST 중국, POST 베트남의 투자처로서 입지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서히 단합된 진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 ex: 일본상점가를 조성, 일본계 대형 유통몰(AEON)의 1,2호 개점, 일본인 학교의 개설 등)

3) 건설·플랜트

- 현지 정부는 각종 인프라를 포함한 사업 발주 능력이 적은 상황이며, 민간 부문의 부동산 투자, 건설 PF 등이 매우 활발하나, 과열 분위기를 띄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임

4) 자원협력

- 캄보디아는 농업, 수산업 관련 자원이 풍부하나, 크메르루즈 이후로 토지 재산권 및 사유권 압수 및 환원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전산화가 미비하여, 실제로 자원을 목표로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이 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토지 권리가 중앙정부, 지방, 과거 개별 토지문서, 점유한 사람의 점유권 등이 복잡히 얽힘)

5) CSR / CSV를 통한 진출 필요성

- 캄보디아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 창출만을 목표로 일개 기업의 독자적인 진출을 노리기에는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여, 시장선점효과만을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따름
-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현지의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진출방법 및 기진출 및 미진출 기업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간접적이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진출 방안일 될 수 있음

1. 추진목표

-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단순히 무역교역투자 부문만이 아닌, CSR/CSV모델과 한국 및 캄보디아 청년인력의 유효한 활용을 통한 시장진출을 다양한 형태 추진중

2. 그간의 주요 추진사업 및 성과

- 한국기업 캄보디아 농산업 단지 종합진출 사업 추진 : 한국 농업의 대캄 진출시 개별기업의 진출로 인한 사업성 결여 및 장애를 돌파하고, 캄보디아의 쌀 수출 배증계획에 따른 쌀시장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에 맞추어, 농산업단지 시범 구축 및 운용을 통한 경제성 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전 시장성 조사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음
- 캄보디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 인력을 6개월-1년간 지원하여, 5팀 가량의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노력중임

3. '15년 추진계획

- 현재 캄보디아의 주력인 관광산업의 전후방 효과 확대를 위한 '경관농업' 및 축제화를 지방정부(반테이민체이 등)과 공동 추진하여, 1회 베일아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향후 패디아트 행사, 2회 베일아트 행사 및 베일아트 오락 프로그램화(TV방송 연출) 등을 진행중

【별첨】

가. 관할지 경제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① 경제 지표

<주요 경제지표>

지 표	단 위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	6.0	7.1	6.5	6.2
1인당 GDP	US\$	792	853	915	931
소비자물가 상승률	%	6.0	4.5	3.0	3.7
수출	백만US\$	3,884	5,276	6,036	6,915
수입	백만US\$	5,466	6,879	7,662	9,056
무역수지	백만US\$	1,582	1,603	1,627	2,141
민간소비 증가율	%	4.8	2.5	8.9	
민간투자 증가율	%	21.3	10.3	5.7	
외국인투자 금액(당해분)	백만US\$	762	1,332	1,339	1,200
외환 보유고	백만US\$	2,249	2,533	3,022	3,600
실업률	%				3.5%
환율(연평균 환율)	US\$	4,191	4,071	4,054	4,024

자료원 : Asian Development Bank

② 경제 성장률

○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률

- 2008년 국제경제위기 이후, 캄보디아의 GDP 성장률은 의류, 제조업, 관광업 및 건설업의 부진으로 6.8%까지 하락하였으며, 2009년 성장률은 0.1%로 낮아졌음.
- 하지만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봉제와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이 예상 되었으나 총선 이후 불안한 정세와 봉제업 노동자 파업이 악재로 작용함.

<GDP 성장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5.5	7.8	6.2	7.2	7.0

자료원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및 상무부

○ 캄보디아 경제 단기 전망

- 캄보디아 정부는 연간 6~7%의 실질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캄보디아 핵심 산업인 봉제부분은 2013년 1분기 14억 달러를 수출하며 작년 1분기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봉제제품 주수입국인 EU, 미국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및 베트남의 임금 상승 때문에 생산기지가 이전했기 때문으로 보임.

- 한 편 관광산업역시 방문객이 전분기 대비 18%가 증가하는 등,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 현재 캄보디아는 투자대상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13년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16.5억달러로 10%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이러한 외자 유입은 캄보디아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장기적인 대외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캄보디아의 경제 단기적 성장흐름은 유지 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경제 성장 속에 캄보디아에서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의 조짐 역시 보이고 있으며 봉제공장의 노사분규 및 최저임금 상승, 높은 빈부격차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캄보디아 경제 중장기 전망

- 캄보디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섬유와 관광의 경우, 섬유는 EU, 미국으로부터 최혜국관세특혜(GSP) 협정이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경쟁국들 역시 혜택을 적용 받아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분야는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 한편 건설업은 개발산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장이 예상됨
- 캄보디아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향상, 인프라 스트럭처 복구 및 신설,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인력 양성 등의 4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과제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먼저 농업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관개 시설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수송 인프라를 개선하며, 종자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영농 방법의 개선, 작물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수산 분야의 개혁, 경지 정리와 지뢰의 제거, 2015년까지 총 면적의 60%까지 숲을 확대하는 전략을 시행중.
- 인프라 건설 및 복구 과제에는 수송망의 확충, 수자원 관리 및 관개 시스템 구축, 에너지 부문의 개발과 전력 확충,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산업 동향 및 주요 산업정책

① 봉제산업 동향

- 노동 불안정 및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봉제산업 투자는 지속적인 확장을 보이고 있음.
- 의류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 6월 까지 26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230만 달러 대비 14.1% 상승한 수준임.
- 금액으로 보면 캄보디아 전체 의류 수출의 37%가 EU로 수출되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36%를 기록함. 중량 기준으로는 전체 수출의 46%는 미국, 34%는 EU로 수출됨.

② 건설 및 부동산 동향

- 정치적 안정성의 회복으로 서비스 부문 중-대형 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중반까지 건설부에서 발급한 건설허가의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하며, 2013년도 대비 30.5%가 증가하였음. 또한 CDC 승인 관광 부분 투자 프로젝트는 2억 5800만 달러 로 전년대비 144%의 증가를 보였음.
- 캄보디아 관광산업에 발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건설 및 서비스 부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③ 관광산업 동향

- 2014년 태국의 정치적 불안 및 중국-베트남간의 정치적 긴장도 증가로 관광객 증가율 감소
 -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태국, 베트남등 인근국가를 함께 방문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캄보디아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줌.
 - 2014년 상반기까지 증가율은 5.2%로 2013년 동일기간 19%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을 보임.
- 중국, 한국 관광객 증가수 감소, 일본 관광객 증가 추세는 유지
 - 중국 관광객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40%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4년 20%의 관광객 증가를 기록하며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었음. 한국 관광객은 더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1.1%의 감소를 기록함.
 - 일본 관광객은 전년대비 4.4%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3년 증가세와 비슷한 정도로 추세를 유지하였음.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 캄보디아가 관광지로서 또한 투자지로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④ 농산업 동향

- 농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쌀산업 부분에서 경작지 확대에 느린 추세를 보이며 증가세 감소
 - 2013년 건기 쌀 생산은 전체 쌀 생산의 23%를 차지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음.
 - 낮은 농산물 가격 문제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생산 및 마케팅 비용 축소도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고, 이는 전체 농업 성장 및 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기타 주요 작물인 고무와 카사바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음.

나. 우리나라 진출현황

① 수출입 동향

- 대 캄보디아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둔화세 보임.
 - 2011년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4억 5078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00.9% 증가한 8,734만 달러 달러를 기록해 3억 6,345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2014년 6.5%의 증가를 기록하여 2013년 보다는 다소 회복하였으나 예

년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함.

- 대 캄보디아 수출은 2009년 이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빠른 경기회복을 나타냈으며 수입 역시 수출에 비해 총 금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2010년부터 2년간 100%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2년에도 44.7%의 증가율을 보임. 2013년도에는 약간 주춤하여 7.9%의 성장을 보였으나 2014년 다시 회복하여 40%의 증가를 보였음.

<우리나라의 對 캄보디아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불,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1월)
수출	금액	450,780	593,295	614,644	654,419	55,614
	증감률	35.4	31.6	3.6	6.5	9.7
수입	금액	87,343	126,359	136,313	193,994	20,694
	증감률	101.0	44.7	7.9	42.3	54.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

② 대 캄보디아 수출

- 캄보디아 주력 산업인 봉제업, 농업 관광업, 건설업이 지속적인 성장기조를 이어나가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직물류, 수송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대 캄보디아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물제품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음.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루미늄조가공품은 2012년 이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류 열풍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 식문화에도 관심 집중, 특히 음료는 2012년 197%, 2013년에도 69% 증가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2014년 역시 27.7% 증가한 규모를 보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품목별 對 캄보디아 수출>

(단위: US\$ 천, %)

순위	품 목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60,832	0.0	153,979	-4.3	143,391	-6.9
2	화물자동차	79,465	78.7	66,843	-15.9	76,733	14.8
3	기타 섬유제품	63,140	19.1	48,732	-22.8	67,252	38.0
4	알루미늄조가공품	44,608	1,452.1	69,080	54.9	50,561	-26.8
5	음료	16,366	197.5	27,644	68.9	35,292	27.7
6	연초류	21,047	33.6	13,392	-36.4	14,775	10.3
7	승용차	16,389	-26.5	11,449	-30.1	13,399	17.0
8	무선전화기	3,036	-	20,357	570.6	33,166	62.9
9	편직제의류	12,513	53.3	15,909	27.1	17,978	13.0
10	건설중장비	14,242	166.6	13,459	-5.5	17,807	32.3
총 계		593,295	31.6	614,644	3.6	654,419	6.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

③ 대 캄보디아 수입

○ 봉제 완성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입량 증가

- 대 캄보디아 수입품 중 편직제의류는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12년 91%, 2013년에 19.3%증가 하였으며, 2014년도 13.1%의 증가를 보였음. 2014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약 41%를 차지하는 규모임. 직물제의류 역시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섬유기업들의 현지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천연고무는 2012년 -59.3%, 2013년 -35.0% 및 2014년에도 -1.8%의 감소를 기록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품목별 對 캄보디아 수입>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제의류	59,521	91.0	71,033	19.3	80,356	13.1
2	직물제의류	10,887	43.2	15,227	39.9	18,969	24.6
3	전선	1,820	634.1	5,343	193.7	16,942	217.1
4	유선통신기기부품	109	-	6,521	5,909	13,675	109.7
5	주류	13,925	-	2,250	-83.8	10,668	374.2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7,770	90.4	7,436	-4.3	10,003	34.5
7	천연고무	11,020	-59.3	7,158	-35.0	7,027	-1.8
총계		126,359	44.7	136,313	7.9	193,994	42.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

(2) 투자진출/투자유치 현황

① 대 캄보디아 FDI

○ 누적 투자 통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투자국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 승인 기준 1994~2013년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실적(누계)은 약 4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4~ 2013년간 투자실적(누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제2위 투자국을 기록하였음.
- 2013년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액은 약 8,18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대비 약 70% 감소하였음. 2014년 투자액도 20%정도 감소한 6억 달러 수준의 투자액에 그쳐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가별 캄보디아 투자 동향>

(단위: Kg, 천불)

순위	국가명	년도			
		2012	2013	2014*	2015(~1월)
1	중국	263,592.0	448,533.3	531,619.4	4,000
2	홍콩	114,447.0	109,875.6	100,954.2	8,000
3	영국	24,631.2	88,955.1	86,774.7	-
4	한국	272,326.2	81,824.7	65,167.0	-
5	사모아	41,050.3	18,523.9	39,210.3	-
6	싱가포르	82,673.9	54,554.0	36,628.6	-
7	대만	95,679.6	85,179.3	34,250.8	-
8	태국	122,978.2	31,871.2	25,384.0	-
9	말레이시아	118.4	5,898.8	24,141.3	-
10	호주	1,038.2	2,893.8	17,753.6	-

○ 요식업, 관광업등 영세규모 투자도 큰 규모를 차지

- CDC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요식업, 관광업(여행사 포함), 도·소매업, 미용업 등 현지인과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진출한 영세 규모의 투자 진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투자 진출 건수 면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투자 추이>

(단위: US\$ 백만,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283.9 (204)	125.6 (207)	1,179.1 (247)	139.9 (236)	138.6 (197)	74.6 (130)	4,427.4 (2,472)

주1: ()은 건수, 신고금액 기준

주2: 누계는 1992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對)캄보디아의 업종별 투자>

(단위: US\$ 백만)

연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2008	64.1	19.5	25.6	178.7	50.8	817.0	107.6
2009	5.8	2.1	38.6	117.0	10.2	71.4	41
2010	9.9	1.0	26.5	20	26.5	9.5	37.4
2011	35.7.1	1,039.4	45.4	10.9	17.5	17.5	12.7
2012	22.3	0	61.4	9.8	11.4	3.0	30.0
2013	7.2	-	57.3	19.6	8.0	4.1	42.7
2014	5.0	1.0	37.1	2.3	10.2	3.9	15.1
누계(08~14년)	114.3	1063	291.9	358.3	134.6	926.4	286.5

주: 신고금액 기준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② 한국 기업의 진출 분야

- 제조업: 의류, PVC 파이프, 통신케이블, PE 백
- 농업: 타피오카, 팜 오일
- 무역: 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 건설: 아파트, 배수로 공사, 도로, 상하수도
- 서비스: 은행, 미용센터, 통관, 자동차 정비, 컨설팅
- 기타: 호텔, 식당, 여행사, 골프 연습장, 가라오케, 극장

(3) 성공/실패사례

① KOREX Plastic 내수 시장 성공 사례

- KOREX Plastic은 국내 대한 통운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플라스틱 배관재 회사로 1997년 4월29일에 수도 프놈펜에 설립함. 설립 직후인 1997년 7월에 발생한 정치 쿠데타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1999년부터는 조금씩 판매도 늘어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 높아져 향후 캄보디아 농촌 개발 붐을 타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도 확대시키고 있음.
- 현지인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파이프 공장이 1개 있으나 경쟁 관계에서 생산성이 탁월한 사출기와 장비를 한국으로부터 공수하여 보다 적은 생산라인으로도 현지 경쟁 업체보다 3배 이상 생산성에서 앞서고 있음.
- KOREX사는 23명의 현지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노사 관계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중 하나인 노동분쟁을 사전 관리하고 있음.
 - 임금 인상 데모에 대해 지사장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직면하고 있는 신설 부가세와 관세 부담을 전부 공개하여 종업원이 합RP 참여하는 회사로서의 인식을 높였으며, 노사 관계의 개선, 추후 장기 근속자에 대한 회사측의 최대한 배려, 야간 작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하여 현지 종업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켰음.
 - 또한 판매 가격에 있어서는 경쟁사보다 4~5% 낮게 책정함으로써 Low End user 인 캄보디아 농민 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회사의 배려가 주효하여 현지 TV에 수 차례 모범 사례로 보도되는 등 캄보디아에서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음.
- 시사점
 - 현지 직원에 대한 인정 및 처우 개선등 직원 복지와 함께 공동체라는 인식을 주고 함. 이러한 인력 관리를 통해 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관리 하며 회사 내부의 안정성을 쌓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특히 KOREX사가 직원 1통장 갖기 운동을 벌여 전 종업원이 회사 경리 부서에 통장을 맡겨놓고 다달이 저축을 계속하는 등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동일 시하는 기업 문화를 뿌리내려 가고 있는 점은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앞으로 진출할 기업에 좋은 모범이 될 것임.

② 인재 가먼트 현지 투자 성공 사례

- 인재 가먼트는 한국 봉제 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 투자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과감히 캄보디아 투자를 결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1,000명이 넘

는 종업원이 캄보디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셔츠 등을 수출하고 있음.

- 인적 자원 양성을 통한 탁월한 생산성 확보 및 종업원 이탈을 막는 복리 후생이 성장의 기반이 되었음. 최초 진출 단계에서 한국인에 의한 현지 교육을 통해 현지 감독 및 간부급 중간관리자 육성을 통해 타 봉제 기업 대비 2~3배에 달하는 높은 생산성 달성. 기숙사 제공, 식사 무료 제공 및 영어 교육, 기타 오락 시설도 복리 후생 차원 제공하여 타 봉제 업체로의 이탈율을 최소화 함.
- 기존 캄보디아 봉제공장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부재, 교육 이수 인원의 타 지역 이탈등으로 인한 충분한 생산성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현지 간부 양성을 통해 해결함.
- 시사점
 - 기타 봉제업체와는 다른 현지인에 의한 현지 종업원 관리 및 복지 증진책이 현지인의 애사심 고취를 촉진하였으며,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짐. 생산성을 바탕으로한 해외 수입선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급 안정성을 경쟁력으로 캄보디아에서 성공적인 진출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지인 인력 관리 노하우는 캄보디아로 한국기업이 진출하는데 모범 사례가 될 것임.

③ 진출 실패 사례/M Telecom 실패 사례

- 1996년 8월 열악한 캄보디아 통신 시장에 뛰어 든 우리나라 K통신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M 텔레콤은 TLMRS(주파수 공용 통신 장비 시스템)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함. M 텔레콤이 자본을 조달하고 기술 파트, 특히 주장비를 국내 L 전자가 맡아서 진출한 캄보디아 통신 시장 참여 사업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9년 1월 150여 만 달러에 이르는 장비만을 캄보디아 체신청에 기증한 채 철수하였음.
- 장시 캄보디아 통신 시장은 해외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내전화 시스템이 열악하여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았음. 또한 국제 통화 역시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제약이 많았음. 이에 M 텔레콤은 주파수 공용 통신 사업에 착안하여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초 수요 예측과는 크게 달리 시장의 반응이 너무 낮았고 급작스럽게 확대, 성장되어 가는 휴대폰 시장에 기대했던 일부 잔존 시장마저도 잠식당하여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됨.
- 캄보디아 통신시장 진입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당시 장비를 지원했던 L 전자의 주장비가 기술적으로 최신의 첨단 장비가 아니어서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는 점과, 당시 격변하고 있던 세계 통신 시장에 대한 예측 부족과 캄보디아 통

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시사점

- 캄보디아를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서 후진 시장으로 판단한 점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음. 일반 통신시장을 거치지 않고 휴대폰 모바일 통신 시장으로 이동하는 시장 변화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였음.
- 이는 소비자 성향 파악에 실패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이라는 판단으로 기타 일반적인 캄보디아 소비 시장으로서 가격 중시 저가 품질 시장으로서 목표 시장을 동일시 함으로써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였음.
- 초기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였다면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하였을 수도 있었기에 세부 시장에 대한 면밀한 사전 시장조사가 투자 기업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